

대출절벽 공포에 광주·전남 7월 가계대출 '폭증'

광주·전남 신규 대출 8567억원...전년비 광주 11%·전남 131% ↑ 2금융권 가계대출 44% 몰려...광주 1314억·전남 2472억원 등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움직임이 지난 7월 말 본격화됨에 앞서 7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에서 8000억원이 넘는 신규 가계대출이 발생했다. 지역 가계대출의 44% 가량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역 예금취급기관 신규 가계대출은 광주 4849억원·전남 3718억원 등 8567억원으로, 지

난해 같은 달(5966억원) 보다 43.6%(2601억원) 증가했다. 7월 가계대출은 전달(2410억원)의 3.6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가계대출은 지난해 7월 4357억원에서 올 7월 4849억원으로 11.3%(492억원) 증가했으며, 전남은 1609억원에서 3718억원으로 131.1%(2109억원) 급증했다.

7월 신규 가계대출의 58.3%는 주택담보대출로, 광주 3046억원·전남 1949억원 등 4995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관련 통계를 낸 2008년 이후 지난해 11월(555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달(3422억원)에 비해서는 46.0%(1573억원) 급증한 수치다. 광주·전남 신규 가계대출의 44.2%는 2금융권에 몰렸다. 지난 7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신규 가계대출은 광주 1314억원·전남 2472억원 등 3786억원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7월 713억원에서 올해 1314억원으로, 84.3%(601억

원) 증가했다. 전남은 1067억원에서 2472억원으로, 131.7%(1405억원)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인한 경기 불만으로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처음 50조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7월 기준 57조 60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자금과 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나면서 7월 광주·전남 금융기관 신규 대출은 1조5984억원으로, 전달(6261억원)의 2.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예금은행은 2719억원에서 4731억원으로 74.0%(2012억원) 늘어난 반면, 비

은행은 4786억원에서 2022억원으로 57.8%(-2764억원) 감소했다. 올 하반기 자금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금융기관 수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금은행 수치는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달보다 1조6543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 여신도 증가폭이 줄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측은 "예금은 상반기 기업예금 확대에 의한 계절요인이 없어지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기업자금 인출 등의 영향을 받아 크게 감소했다"며 "또 지자체의 재정자금 집행 등에 따라 공공예금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상품 가입하고 현대차 ‘캐스퍼’ 받자

창립 53주년 기념

‘볼수록 매력있어’ 이벤트

창립 53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결과물인 신차 ‘캐스퍼’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4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볼수록 매력있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 1등 당첨자에게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현대자동차 ‘캐스퍼’가 주어진다. 광주은행은 ‘캐스퍼’를 위탁 생산한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지역 기업으로는 처음 260억원을 출자하며 3대 주주로 참여했다.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예·적금, 대출, 외화예·적금,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총 14종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해도 자동 응모된다. 참가자들은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메달 1개씩을 받는다. 메달을 8개 이상 받으면 금메달, 메달 6개 이상 은메달, 메달 4개 이상 동메달을 달성하며 추첨 대상자가 된다. 1등 경품 ‘캐스퍼’ (금메달·1명)에 이어 은메달



2명에게는 김치냉장고를 준다. 선착순으로 동메달을 달성한 2만명은 배달 앱 쿠팡이츠 이용권 1만원권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이용권, 적금통장 중 1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적금통장의 경우 1만1000원이 들어간 통장이나 10달러가 든 외화 적금통장이 주어진다. 순위에 들지 못하더라도 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착순 1만명에게 GS편의점 상품권을 주고, 상품

만기 예정 고객 5000명에게도 상품을 지급한다. 송종욱 은행장은 “광주은행 창립 53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민과 고객이 보내준 한결같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즐거움을 주는 금융서비스로 고객과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폐업’ 늘자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17% 증가

광주 1390건·전남 995건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 증가율이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관리·감독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1257건) 보다 17.3%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 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올 상반기 1390건으로, 전년(1100건)보다 26.4%(290건)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세종(35.0%)과 강원(32.1%)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

로 높다. 전남은 822건에서 995건으로, 21.0%(173건) 증가했다. 전남 역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톰브라운 입은 ‘겔 워치 4’ 사고 싶어도 못산다

삼성전자, 온라인 추첨 한정 판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4 클래식 톰브라운 에디션(사진)을 추첨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응모 다음 날인 30일 발표한다. 갤럭시 워치4 클래식 톰브라운 에디션의 가격은 95만원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갤럭시Z플립 시리즈 등 폴더블폰에서 톰브라운 에디션을 선보인 바 있다. 스마트폰이 아닌 갤럭시 워치에서 톰브라운 에디션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갤럭시 워치4 클래식 톰브라운 에디션은 스트랩과 워치 페이스



등에 톰브라운의 고유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실버 색상의 42mm 블루투스 모델로 출시되며, 톰브라운의 박음질 디테일을 담은 화이트 가죽 스트랩과 패브릭 소재 스트랩, 불소고무(FKM) 소재의 그레이 색상 스트랩 등 3가지 종류의 스트랩과 충전기를 함께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코인빗 상장폐지 예고에도 일부 코인 급등

아몬드 전날 증가보다 532% ↑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코인빗에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앞두고 일부 코인이 급등하고 있다. 코인빗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현재 이 거래소 원화 마켓에서 아몬드는 전날 증가보다 532.55% 폭등한 개당 2.72원이다. 아몬드는 최근 24시간 중 0.41원까지 내렸으나 2.72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시간 에스코인(312.06%)과 페어체인(100.0%) 등도 100%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 이들 코인도 앞서 아몬드처럼 급등락을 반복했다. 엘브릿지(-96.92%)나 아이퓨엘(-90.01%) 등이 시간 100% 가까이 급락 중인 코인들도 최근 며칠 사이 급등락을 반복했다. 아이퓨엘의 경우 전날 오후 2시 50분까지만 해도 한때 개당 220원까지 올랐으나 이날 오후 4시 현재 5원으로 급락했다.

이들 급등락 종목을 이날 오후 4시에 상장이 폐지된 36종 코인들의 일부다. 다른 상폐 코인들도 급등락한 건 대체로 비슷하다. 이를 두고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상폐 빔으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라고 말했다. 상폐 빔은 폐지를 앞두고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코인 거래 시장에서 종종 나타난다. 상장이 폐지되는 코인들은 다음 달 31일 오후 7시까지 출금할 수 있다는 게 코인빗 측의 설명이다. 코인빗은 오후 4시 일부 코인들의 상장 폐지와 함께 원화 마켓의 문을 닫고, 원화 마켓에 있던 코인들을 이날 오후 8시에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옮긴다.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판다. 코인빗은 앞서 이날 16일 오후 4시계 긴급 서버 점검을 시작한 뒤 19일 자정을 넘어서까지 투자자 접속을 막았다가 원성을 산 바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18억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21억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천만원, 중개환영 010-6837-4700